

# 2011 지구촌 기상도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지난해 11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및 COEX에서 G20 회원국과 5개 비회원 별도 초청국을 비롯한 7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글로벌 금융안정망, 금융규제 개혁, 무역, 개발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 에너지,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반부패 등의 의제에 합의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新냉전 화약고 한반도 싸고 외교전 치열



### 美·中 갈등 탈출구 찾을 수 있나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자리를 위협받게 된 미국과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중국이 신묘년 새해를 어떻게 풀이할지 관심이 쏠린다. 미·중 관계가 글로벌 정치·경제 지형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두 강대국 사이에 끼여있는 한반도엔 더욱 중요한 일이다.

미국을 강타한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대외적 위상이 올라간 중국은 올해 '도광양晦(輪光養晦·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뜻)'에서 '대국굴기(大國崛起·우뚹 일어섬)'로 확실한 변신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미국과 부딪혔다.

새해 G20 관계의 방향을 좌우할 첫 고비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다. 미국은 후 주석의 방미를 통해 미·중 관계를 회복하고, 중국의 태도 변화를 최대한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후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국빈 방문객' 자격으로 방미하는 것도 미국의 후 주석을 맞는 자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세계경제 양극화, 환율 전쟁 우려

신묘년 세계 경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선진국과 과열 우려가 제기되는 신흥경제국이 극명한 대비를 이룰 전망이다.

각국의 긴축 정책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포르투갈은 공무원 급여 5% 인하안을 내놨으며, 스페인 의회는 재정지출 7.9% 축소안을 승인했다. 아일랜드는 재정지출을 40억 유로를 삭감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의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유로존의 내년도 성장 전망치는 1.5%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성장률 1.7%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각국의 긴축 정책은 더딘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유럽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공화당이 재정지출 축소 방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신흥시장의 경제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약간 낮은 4.2%로 전망한 가운데, 신흥 경제국의 성장률을 선진 시장의 3배 수준인 6.4%로 예측했다. 특히 중국과 브라질, 인도가 세계 무역을 주도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해 지구촌 경제를 흔들었던 환율 전쟁도 최근엔 잠잠해졌지만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올 들어 다시 촉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유럽의 재정위기 재발,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 조치, 중국의 위안화 절상 거부, 글로벌 경기 하강 등이 겹칠 경우 각국이 '국익'을 챙기기 위해 환율 문제를 놓고 다시 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도하개발어진다 협상 전망 청신호

DDA 협상이 10년에 걸친 교착 상태를 깨고 2011년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DDA는 농산물 수출·수입국의 대립,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상들이 DDA를 2011년 말까지 타결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 변화가 나타났다.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미국과 프랑스, 중국 등이 협상에 적극성을 보인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상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또한, WTO 회원국 모두 만약 DDA가 실패로 끝

날 경우 지금까지 구축해온 국제무역 시스템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는다는 공감대가 있는 점도 동력이 되고 있다.

DDA 협상이 2011년 말 최종 타결되면 전세계 교역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고,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불황 장기화에 직면한 세계 경제에도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반도 둘러싼 주요 강대국 외교전

신묘년 새해를 맞은 한반도가 신(新) 냉전의 '화약고'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강(強)의 외교전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한국군의 연평도 사격훈련 등으로 한·미·일 주도의 대북 압박공조는 더욱 견고해졌고, 이에 맞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연결고리를 보였던 북·중·러가 다시 결속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이하 현지시간) 한반도 긴장고조와 관련해 긴급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합의도출에 실패한 것이 양대 진영의 '출구 없는' 평행선 대치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한반도 상황악화는 견딜 수 없는 과력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전반적 흐름을 대외 쪽으로 돌리려는 '새관짜기' 움직임이 물밑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임기를 1년 남겨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으로서 동북아의 최대 현안인 한반도 문제에서 외교적 성과를 올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도 2012년이 선거의 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새해가 남북 정상회담을 치를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정권으로서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앞두고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를 향해 보다 가시적인 태도변화를 보이면서 과거의 협상국면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경제난과 후계세습을 둘러싸고 내부의 불안정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권력의 중심으로 등장한 김정은이 어떤 행보를 보일 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 소셜네트워크의 무한 질주

현재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의 위력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페이스북과 트위터 사용자의 급증은 일종의 '안전 보험'과도 같은 기능을 한다. 유무형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네트워크는 더 이상 무력으로 제압할 수 없는 것이다. 웹의 검색엔진은 구두(口誦) 검색결과를 포함할 것이다.

독일 프라이프호퍼 연구소는 이미 TV와 라디오에 녹음된 음성을 디지털화해 인터넷에 올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 테러와의 전쟁은 계속된다

미국이 지난해 8월 이라크에서 전투병력을 철수한 뒤 올해 연말까지 이라크에 남아있는 군·경찰 훈련 등을 담당해온 지원병력까지 모두 철수시킬 예정이다. 미군이 이라크를 완전히 떠나는 것은 2003년 이라크전 시작 이래 8년 만이다.

하지만, 지구촌의 '테러와의 전쟁'은 지속할 전망이다. 올해는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지뢰' 탓에 더욱 긴장하게 될 듯하다. 공황이나 대사관 등 거대 목표물만 노렸던 테러조직이 '마이크로 테러리즘'(음식점 등 접근이 쉬운 장소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저지르는 테러 범죄)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謹賀新年



### 조선대학교병원



병원장 김 만 우  
대표번호 220-3114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588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의사회장 이정 남  
대표번호 529-2101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18-9



### 광주보훈병원



병원장 정 창 영  
대표번호 602-6114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길 91